사순 제1주일 강론(2020년 3월 1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지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어제 저녁 시간으로 이미 37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전염병이 크게 유행했던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14세기 중엽 전염병이 발생해서 유럽을 전역을 휩쓸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흑사병이 심하였는지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상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염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1347년에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이후 약 300여 년 간 주기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때 독일 남쪽에 오버아머가우(Oberammergau)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살던 한 사람이 이웃 마을에 갔다가 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순식간에 전체 마을로 번졌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당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런 결정을 했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죽음의 흑사병에서 구원해 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특별한 연극을 만들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날 이후 단 한 명도 그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634년 성령강림 때 첫 수난 연극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그 후 35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매 10년마다 그리스도의 수난극(Passion Play)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세계 각지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지 매년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인구 5천이 채 안되는 자그마한 마을인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연극에 배우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극은 아침 9시에 시작하여 점심시간을 빼고 저녁 6시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배우들은 실제 생활도 그 배우의 모습으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5개월 동안 100번 정도 공연하는데 이미 1년 전에 모든 표가 다 매진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날씨가 변덕스럽고 지형도 가파르고 해서 농사도 짓지 못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입장료와 숙박비 수입이 8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약 900억 원입니다. 이 연극을 통한 마을 사람들 수입이 한 가구당 10만 불 정도 된답니다. 농사나 짓고 공예품이나 깎아 팔았다면 그 마을은 이름도 없는 시골동네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기,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지혜롭게 고난의 시기를 이겨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는 은총의 시기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보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럴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낸다면, 고통의 순간은 은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 첫 주일 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온갖 유혹을 받으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 시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느끼는 은총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고요와 침묵의 장소이고, 온갖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현실을 깨닫고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하고 매달려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이고, 하느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자들이 사막을 찾아 떠납니다. 광야는 오랜 옛날부터 하느님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단식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광야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르단 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사해 서쪽에 있는 유다 광야입니다. 지난 성지 순례 때 이 광야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생활하기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곳곳에 벼랑과 협곡이 있고 바위가 많은 곳입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40일간 기도와 단식으로 피정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나약한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도움과 은총으로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의 삶과 같은 순간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인생이 버겁고, 힘들기만 한 순간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이 사막과 같은 순간이 있지요. 바닥을 치는 순간이 언제든 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그저 하느님께 맡기면서, 하느님 만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비로소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고요한 곳입니다. 고독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 보고,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많은 소음과 조급함과 산만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적 고요와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참지 못합니다. 말을 안하고 있으면 불안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과 내적 고요가 필요하죠. 광야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단식하던 예수님이 악마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빵에 대한 유혹인데,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유혹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곧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성적인 유혹도 따지고 보면, 생존에 대한 유혹입니다. 자손 번식을 위한 성적인 유혹이 그렇게 강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 생명 연장에 대한 유혹이기 때문이죠.

우리 대부분은 생존에 관한 유혹에 약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가짜 물건을 만들어 팔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고, 여러가지 사기를 치고, 신제품 기술을 빼내서 경쟁회사에 팔아 넘깁니다. 그러다가 붙잡히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생존에 관한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교만에 대한 유혹입니다. 아담의 원죄부터 이어져 온 아주 질긴 유혹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교만. 내가 항상 옳다는 자만심. 이게 대단한 유혹입니다. 대접받기 좋아하고, 인정 받기 좋아하고, 사랑받고 싶고… 조금만 무시 당해도 난리 납니다. 남들보다 잘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런거죠.

세 번째 유혹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관한 유혹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유혹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죠. 주변 사람들 다 참견하고, 내가 다 컨트롤 하고 싶고, 남에게 간섭 받기 싫고… 인생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 보다도, 예수님 보다도, 내가 먼저죠. 내가 하느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 뜻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기도도 내 뜻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내 뜻이 먼저입니다. 내 뜻대로 안되면 하느님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없습니다.

이 세가지 유혹들은 모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혹 세 가지입니다. 생존에 대한 유혹,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교만에 대한 유혹, 그리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유혹. 이런 유혹에 예수님은 악마와 옥신각신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들어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세 번의 유혹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한방에 물리치십니다.

광야에서의 이 세 가지 유혹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예수님에게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인생의 유혹들입니다. 빵을 움켜 쥘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 말씀을 품을 것인가? 내 하고픈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 뜻에 따라 살 것인가? 내가 중심이 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께 중심 자리를 내어 드릴 것인가?

40일간의 사순시기 동안 우리도 광야로 나가라고 초대받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고독과 침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옳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혹시 내 맘대로,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사순시기는 고난의 시기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총의 시기”라고 말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 시기. 올해는 보다 하느님 은총이 가득한 사순 시기를 보낼수 있도록 작은 결심 하나씩 새워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상처주고 상처 받았던 일이 있었다면, 다 잊고, 용서하고, 이번 사순시기를 기점으로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먹고 살기 바쁘고, 삶의 여유가 없어서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묵묵히, 알게 모르게, 조용히 사랑과 나눔을 실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올해 맞이하게 되는 주님의 부활은 더 거룩하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기쁜 부활 축제가 되도록 잘 준비해 갑시다.